

몽골 방문 동포 간담회

고문님, 회장님, 동포 여러분, 이곳에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서울’ 이름 붙은 영업장이죠. 서울 이름 붙은 영업소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니까 감회가 각별합니다. 여러 나라 다녔지만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숫자가 2천 명 정도이니까 많다면 많지만, 수백만 명 있는 곳에 비해서는 적죠. 숫자도 많지 않은 곳에서 아주 기분이 색다릅니다.

저는 몽골 와서 계속 기분이 좋습니다. 대접을 참 잘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양국 간 서로 협력할 일도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 몽골 사이에서 정부, 민간 전체를 포함해서 대개 16개, 오늘 아침에 신문은 18개로 기록돼 있는데, 그렇게 많은 협정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양국 관계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직접 민간 사이에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게 되는 토대이기도 하고, 많은 협정들은 민간인들 상호간에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 길을 닦고 장애물을 치우고 뒷받침하는 협정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장관이 네 분이 왔죠. 네 분이 왔는데, 제가 해외를 많이 나가지만 여러 나라 다니는데요, 다섯 분이네요. 난 외교장관 빼고 말했습니

다(웃음). 외교장관은 항상 고정멤버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외교장관이 기분 나쁘면 집에도 안 데려다 주거든요. 대통령이 아주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아도 외교장관이 어느 나라 가라 그러면 가고, 이 나라 볼 일 다 봤으니까 가자 그러면 가야 하고, 동포 만나는 것도 만나라 하면 만나고 만나지 말라 그러면 못 만납니다. 외교장관 포함 다섯 명이고 경제인도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 많은 일들이 의논되고 있구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교통 사정도 국제적 수준으로 보면 편안하지 않고, 사람 오가는 데 지장은 없지만, 경제는 물건이 오가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좋지 않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하면서 조금은 답답한 느낌도 있었지만, 저는 역사를 길게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에 있어서 열매를 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들 자랑스러워

길게 보자고 했는데, 우리 한국민들의 삶의 무대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울란바토르 대학에 가서 한국어, 한국학 공부하는 학생들과 한국말로 대화했습니다. 외국 가서 한국말 대화하는데 동포들 만났을 때만 가능하고, 어떤 경우 동포 만나도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려운데 몽골에서 몽골 학생들과 한국말로 대화했습니다. 한국 분이 학교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느낌이 아주 남다른데. 오니까 한국 이름의 간판도 많이 있고, 보통 한국 이름이 영어로 쓰여 있는데 오늘 이 집은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동포들이 몽골에 와서 넓게 활동하고 깊게 뿌리내렸구나 생각하면서, 한국 국민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역량이

특별하고 열정이 대단해서 어디 가서라도 항상 어떤 나라 사람 못지않게 큰 성공을 거두고 그 사회에서 존경 받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력을 신장하면서 국가 위신을 함께 올리는 일들을 하는구나 싶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거든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는 크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안보에 있어서의 큰 관계가 있는 문제, 또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 무대를 위해 돈이 좀 크게 되는 것을 갖고 다니는데, 몽골에서는 우리 기업인이 50분 이상 왔습니다. 큰 사업 하러 온 분도 있고 그 분들도 중요하나, 여기 사는 여러분의 활동 터전에 우리가 무슨 도움을 줄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장관이나 비서들이 적어 주는 것은 너무 큰 것만 적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정을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듣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좋은 말씀들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십시오.(웃음, 박수)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교류

대사관과 교육 문화원 등 개축 및 신설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대사관을 새로 짓죠, 근사하게. (환호, 박수) 잠깐, (웃음)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의 국력, 경제력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으면 지금 수준의 1만 6-7천불짜리 짓고, 조금 기다려서 지으면 2만불, 2만5천불짜리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한번 보고 대사께서 당장 지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2만5천불짜리 지을지 장관과 의논해서 하죠.

조금 못해도 좋으니, 당장 지으라 하면 당장 짓고 앞으로 지으라면 좀 더 보태서 짓고. 상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성 높게 국가

예산을 써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 사기입니다. 국민들이 그것으로 사기 죽어서야 쓰겠습니까. (박수)

교육문화원 문제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보다 우리 동포들이 밀집해 있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열의가 높은 곳입니다. 어제 울란바타르 대학교 갔을 때도 역시 몽골 학생들이 그것을 제게 건의해 왔는데, 아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떤 욕구가 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문화원 두 분이 말했으니까 이것도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기관이 만들어지면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에 몽골 국민 중 노동자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대개 올 때 2만1천 명 된다는 자료 봤는데, 오면서 보니까 2만6천이죠? 오는 동안 4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무척 빨리 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돈이 많지 않으므로 몽골에 돈으로 원조 못 해도 대신 같은 돈이라도 몇 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요령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교류입니다. 그것이 좋은데, 정부 연수도 좋고, 그 다음에 몽골 학생들을 많이 받아서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돈 있는 사람 자기 돈 주고 오고, 장학생들이 성공하면 제 돈 주고 와서 교류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 점 고려해서 문화원 같은 것도 여러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쪽쪽 대답하면 시원하긴 한데 역시 국정은 요모조모 따져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점수가 똑같이 나오면 몽골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또 대통령 점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또 말씀하시죠.

대북문제에 있어 상호 불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김정일 위원장을 잘 설득해서 한국에서 기차에다 자동차를 실으면 울란바토르로 바로 오고 시베리아 별관을 유럽에 나가는 물류 기지를 활용하도록 김 위원장을 잘 설득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참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조금 전에 김 지사장이 말한 대로 그 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류 인프라가 어려우니까 광물 개발에도 그런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6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합니다. 미국하고 주변국가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정부가 선뜻선뜻 할 수 없는 일도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길을 잘 열어 주면 저도 슬그머니 할 수도 있고. 저는 북에 대해 완전히 열어 놓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얘기해도 좋으니 만나서 얘기해 보자, 우리 국민들은 북한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쨌든 함께 안정된 토대 위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고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를 들어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 내용이 북한에서 보기에 불안한가 봐요. 반격이긴 한데, 반격이 원체 단호해서 보기 따라 불안하게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시비일 수도 있고, 실제로 불안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북한도 마음을 선뜻 못 열고, 내부에도 복잡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면 북한도 가볍게 융통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양보를 원칙 없이, 국민 보기에 따라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원칙 없이 양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것,

한국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모든 것을 북한 뜻대로 하자 하는 식으로, 북한에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양보할 수 없지만, 본질적인 정당성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양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제도적 물질적 지원 이런 것은 조건 없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서로가 옛날에 싸웠던 감정이 있고, 무엇보다 불신이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자연히 군사력도 세니까 혹시 북한정권이 무너지기 바라거나 그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게 하는데, 그 불신이 있는 동안 어떤 관계도 제대로 진전이 안 됩니다. 마음의 불신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상대방과의 대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형식의 문제가 있지만,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 불안감을 제거해 주고, 결국 “우리를 해칠 생각이 없다, 흔들 생각 없다, 같이 손잡으면 우리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질 때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 있어서 북한 내부도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생각해 보면 개성공단을 열었다는 것은 소위 옛날식으로 말하면 남침로를 완전 포기한 것입니다. 금강산도 매우 중요한 통로죠. 서로 싸움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통로인데 그런 것을 열어서 한 것을 보면, 우리도 조금 믿음을 내보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육로를 통해서 몽골에 도달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십시오. 성원해 주십시오.

불법체류와 인권침해 문제

그 다음, 양국 간 인적교류에 있어서 불법체류와 인권침해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네요. 사실 9천 명 정도를 고용허가제 수용할 인력으

로 쿼터를 배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더 몽골 사람들을 원하면 이 T/O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T/O가 많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늘 수 없죠. 산업연수생제도가 인권문제, 신분 관리에 문제가 있어 고용허가제를 만들고, 이를 유연하게 운용해서 어지간하면 불법 안 되게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부득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제한 이민 받겠다고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민간인들이 알보고 이런저런 불법 행위 합니다. 그걸 못 하게 최대한 보호하고 단속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하나는 불법 체류 되면 자녀가 있을 때 학교에 보내면 교육부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도 아이들 교육을 무조건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적발해 내보내야 되니까 살살 다니면서 찾는데,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찾으면 쉽거든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국법 질서에 모순이 없어야 하는데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 산업 같은 것도 불법인데도 인권침해를 염려해 단속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불법은 불법이고 인권보호는 보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법무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찾아라, 학교 학생들을 단서로 불법 체류자를 찾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송금 문제 불편이 있는데, 어제 몽골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들으니 합법 근로자도 송금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해봤다고 하고. 실제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합법이 아닌 사람들이 송금을 어떻게 하는지 가서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불법 체류를 말려야 하는데 자꾸 편의를 봐 줄려고

하니, 이거 비밀입니다(웃음). 국가기관 간에 모순이 있을 수 있고 모순을 가진 채 적절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제도를 아주 관대하게 하려고 한때 생각했는데, 몇 번 강조하고 하는 동안 프랑스에서 국내 수요가 일어났었고, 독일에서 독일 외교 장관이 비자 발급 기준을 아주 쉽게 해서 아주 쉽게 내줬더니 터키에서 100만 명이 독일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들어온 사람까지 일부 독일 국민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 있으니까 다른 데 화풀이 못 하고 입국자에게 화풀이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 싫다’ 이렇게 하니까, 먼저 들어와 열심히 일한 사람도 푸대접 받고 외교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국내에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몽골 당국에도 당부하고, 국민들에게도 ‘되도록 한국 입장 생각해 주면 좋겠다. 합법적으로 하자’ 고 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같이하는 민족, 문화 공동체가 있고 국가공동체가 있죠. 시장을 얼마나 밀접하게 갖느냐에 따라 일종의 시장공동체, 경제공동체도 있습니다. 그 상위에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 인권, 인간이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의 공동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개념입니다. 이것이 서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 안 맞아서 속도 조절하고 모순 관리하는 것이 사회의 성숙도를 말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순혈주의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타민족과 공존하는 정책을 펴갑니다. 이렇게 잘 조절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좋은데, 가서 국민들과 노력하고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노력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내보낼 때 내보내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직업 훈련, 평생 학습을 아주 빠르게 국민들이 받도록 정책을 해가고 있습니다. 국력이고 경쟁력이기 때문에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아울러 이것이 정당한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과 직업 전선에서 충돌이 되지 않도록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서 온 사람은 항상 낮은 것만 하라는 것이냐’고 질문하면 답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고급의 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교육도 제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자랑스런 한국민으로서 성공하시길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고비 사막 넘어오면서 누가 맨 처음 이 사막을 건넜을까 궁금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발상해서 서아시아, 터키 쪽으로 와서 남으로, 북으로 시베리아로 왔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 북쪽으로 둘러서 온 것 같습니다. 몽골 와서 다리가 아파 ‘더 못가겠다, 너나 가봐라’ 해서 아들에 아들, 아들에 아들 대를 이으면서 조금씩 동진해 한국까지 도착했겠지요. 형님이 여기 남고 동생이 왔는지, 동생이 남고 형님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 동생은 아버님 모시고 살고 형님이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100만 년으로 치면, 100년에 1킬로씩 건너온 것입니다. 크로마논인과 현세인을 보면 5만 년이므로 5년에 1킬로씩 온 셈입니다. 장고한 세월 동안 와서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큰 띠로 이어보면 역사적으로 몽골리아의 벨트를 볼 수 있고, 결국 역사를 길게 보면 같이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역사도 이런 긴 호흡으로 가게 될 텐데,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가까운 이웃이고, 몽골이 우리를 무력으로 휩쓴 적이 있었지만, 한반도 주변의 패권 세력이 아니므로 불신, 적대감도 없습니다. 중, 일은 패권주의, 중국은 오랜 패권주의고, 일본은 오랜 침략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통합의 이해관계가 원체 커서 그런 싸움 안 날 것으로 생각하나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그러나 몽골과는 그런 걱정 없는 좋은 이웃입니다.

한국 기업인이 몽골에 풍차 발전소, 태양열 발전소 만들어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린 뒤 나무 심겠다고 했습니다. 한·몽 경제협력 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을 맡고 있어 신망 있는 분이어서 헛소리하실 분이 아닌데,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되면 나도 나무 몇 그루 들고 와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사적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농림 장관, 산림 조합장도 오셨습니다.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강한 권력 있는 사람이 백성 착취해서 쌓아 올린 것이니,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문화적 유산이 적대하고 지배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온 역사와 그 토대에서 세워진, 요즘 기준으로 생각하면 죄의 탑이죠.

만일 몽골에서 나무 심어 나무가 숲을 이룬다면, 이것은 세계 역사에 없는 정말 새로운 문화유산입니다. 교류와 협력, 공존의 세계, 황사 문제도 해결하고 좋은 현상인데, 결코 쉬운 현상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해 보고 싶다는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미래의 문화유산으로서 소중한 값비싼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하루하루 삶도 좋지만 그러면서 하루하루 현실의 장애를 극복하고 내가 못 하면 후손들이 한다는 이런 자세로 살면, 여러분 몽골에서의 생활도 보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정부도 멀리 내다보면서 하고, 몽고에 사시면서 평안하고 하는 일 모두 성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국이 잘 되도록 항상 마음 모아주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푸틴 대통령 만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어를 일상으로 쓰는 한국 동포들은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연해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

니다. 나라가 달라지니까 국적이 없죠. 그래서 국적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절차 진행 중이지만, 푸틴 대통령이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대답과 실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때 푸틴 대통령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관할 주지사 부르고 내무장관 불러 지시하고 그 뒤 여러 번 챙긴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모범적인 소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말썽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 이름은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어 한국인은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 즉석에서 대답한 이유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엄청 자랑스러웠습니다. 국민에게 감사하고, 러시아 동포에게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대통령 잘 해야지’ 그런 결심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나 국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애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의 질서에 도움이 되고 기여하고 존경 받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이거든요.

다음에 우리 한국의 지도자가 몽골에 와서 같은 말을, 지금도 저는 듣고 있지만, 확실하게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 주면 그야말로 큰 애국이 되겠습니다.